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8월 15일(금)  
..(음력 윤6월 22일)..  
Пятница  
15 августа 2025 г.  
№ 32 (1214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올해는 한반도가 해방된 지 80주년이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진 광복절 기념행사의 한 장면.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습수섬,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 개최

8월 18일(월) 쿠릴 열도 습수섬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쿠릴 상륙 작전의 날'을 맞아 제1단계 군역사기념관 개관식과 소련 장병 유해 이장식이 진행되며, 군 역사의 사건 기억을 위한 재현 행사와 '171고지' 크로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이 개최된다.

'승리' 기념관 단지 측은 최근 쿠릴 상륙 작전 탐사에서 500여 점의 유물을 수집했고, 최근에는 이동식 박물관이 공개되었으며, 탐사 결과는 기념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음악가 장고와 사할린 필하모닉의 연주자들의 공연이 열리고, 김 웨니아민은 쿠릴 상륙작전을 기리는 노래 '습수 상공의 구름'을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행사는 '모닥불 노래'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된다.

### 러시아, 텔레그램·왓츠앱 통화 기능 부분 제한

로스콤나조르(러시아통신감독청)는 텔레그램과 왓츠앱\* (왓츠앱은 메타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메타는 러시아 연방에서는 극단주의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음)의 통화 기능을 러시아 내에서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범죄자들이 주로 이들 앱의 메신저 통화로 시민들을 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능은 제한되지 않는다.

### 쿠나쉬르섬에서 대조국전쟁 시 투하된 불발탄 발견

유즈노 쿠릴스크 쿠나쉬르섬의 '차이카'온천 부근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불발탄 4발이 발견됐다. 비상대책부 사할린주 관리국에 따르면, 8월 12일 오전 10시 12분 첫 포탄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3분 만에 포탄을 확인하고 주변 접근을 봉쇄했다. 추가 수색에서 3발이 더 발견되어 전문가들이 4개의 포탄을 해체한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

### 주지사, 세웨로쿠릴스크 지역 주민들과 만날 예정

8월 17일(일),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가 실무 차 세웨로쿠릴스크 지역을 방문한다. 이번 출장에서 지난 7월 30일 발생한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복구 상황을 논의하며, 비상사태 예방 및 처리, 화재 안전확보를 위한 본부회의를 연다.

주 정부 관계자들과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 드리트리 아리스타르호브 장관은 2주간 파라마쉬르 섬에서 복구작업을 진행중으로 완료까지 감독할 예정이다.

## 존경하는 사할린한인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소련의 장병들과 한민족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된 지 정확히 80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한반도 식민 종식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종전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었으며, 사할린과 쿠릴에서 격렬한 전투는 곧 종료되었습니다.

9월 2일 일본은 항복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사할린 지역에서 한민족의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전쟁시절 한반도에서 수만의 한인들이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중 많은 한인들이 사할린 섬은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할린의 한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언어를 소중히 보전하고, 사할린주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개발에 큰 기여를 하며, 또한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용맹스럽게 전투에 임하고 계십니다.

한민족의 광복절을 맞아 동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가정의 번영과 새로운 성취를 기원합니다!

광복절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러시아 연방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동방경제포럼 적극 준비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자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이며,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인 유리 트루트네브가 제 10차 동방경제포럼을 위한 준비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우리가 동방경제포럼 10주년 기념행사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동방경제포럼은 극동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들이 극동의 지역들로 진출하고 있다. 선도개발지역, '해타르'프로그램, 대출 혜택, 도시개발의 마스터플랜 등이 극동 지역들에서 시작되었다. 극동지역의 주민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고, 공항이 건설되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명백하나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극동 지역이 지금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러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시장 진출을 위한 경유지가 되고 있다."며 회의의 시작 발언을 했다.

동방경제포럼에는 약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참가자들의 지역 분포로는 36개의 국가와 지역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동방경제포럼의 프로그램 구성이 일찍이 발표되어 포럼의 주요 주제는 <극동지역 - 평화와 번영의 이름으로 협력>이다.

포럼의 사업행사는 주제별로 나뉘어 <극동 - 생활과 발전을 위한 지대>, <성장 레시피: 투자, 혁신, 통합>, <개방과 상호이익의 협력 - 안정성의 기초>, <기술: 이론에서 경제적 효과로>, <도시 - 사람의 생활을 위해>, <성장의 동맥: 물류가 경제를 변화시키는 방법> 등,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관계: 대규모 재구성>라는 추가 주제를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프로그램은 총 90개 이상의 강연 및 회의로 진행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고문이자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인 안톤 코바코브는 "동방경제포럼 10주년 진행으로 극동지역 개발의 중간 결과를 요약해볼 수 있다.

풍성한 사업프로그램은 현재 성과들의 정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지역에 미래의 경제를 위한 유망한 분야를 결정하게 한다. 행사의 일환으로 창조산업 포럼, <매의 날>국제포럼, <미래의 날> 청년 포럼, 고등교육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 콘퍼런스, 러시아 역사학회 콘퍼런스 개최가 계획되어 있다.

포럼 프로그램에 중국을 비롯해 인도, 태국, 미얀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기업들과 사업 논의가 포함되어 있고, 참가를 위한 신청서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세계 공동체를 향해 준비된 평등한 권리와 상호이익의 대화로 우리 협력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동지역의 수장인 올렉 코제마코는 동방경제포럼 10주년을 맞는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준비 방안을 설명하며 동방경제포럼 진행을 위한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제반시설 준비에 따른 로드맵(roadmap:계획과 목표 및 단계적 활동)의 범위에서 200개 이상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포럼 조직위는 공공질서 확립을 비롯해 시민과 전력의 안전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45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켰다고 전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토박이>: сахалин 한인의 역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2025년 8월 12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이국 땅에 남겨진 사할린 한인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토박이> (감독 도카 안톤, 프로듀서 하 세르게이)가 처음 상영되었다. 522석 전석이 매진되었고, 영화관 입구에서는 관객들이 남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2년 반에 걸친 다큐멘터리 제작에 치밀한 계획으로 작업한 결과, 100분 동안 이어지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로 완성되었다. 촬영은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졌다. 사할린주 역사 기록보관소, 사할린 주향토 박물관, 새고려신문사, '우리말 방송 KTV', net-film 영화 아카이브, 윤 주영의 '사할린의 한인' 사진집,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귀환' 사진집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

었다. 많은 자료는 사할린 주민들의 개인 소장품에서도 많은 자료가 제공되었다.

영화 구조에 있어 아주 좋은 발견은 고 박수호 교수의 책 <사할린의 한인들>이었다. 그는 사할린 한인세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자 뛰어난 경제학자, 교수, 사할린 국립대학교 동양학과 창립자이며,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의 설립자 중 한 분이었다. 영화는 그의 초상과 인용문으로 시작되어 '사할린 한인들' 저서의 인용문을 의미 있는 이정표로 사용했다. 그리고 '토박이' 영화는 박수호 교수 추모 작품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혀졌다.

영화는 전문가들의 해설과 한인 1세의 어르신들의 처절한 경험담과 가족 이야기, 역사적인 영상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는 내내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사할린 한인 연구로 잘 알려진 아나톨리 쿠진, 진 울리아, 박승의,



니콜라이 위쉬넵스키, 한국학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학교(서울) 교수, 카자흐스탄의 김 게르만 교수가 해설자로 출연하고, 조영제 할아 버님을 비롯해 여러 어르신들,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대표,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방송국 소속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과 이복순 기자, 그리고 주미술박물관 하이 울가 수석 연구전문가, 주향토박물관 김영희 학예연구사 등이 총 36명의 인물이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에 대해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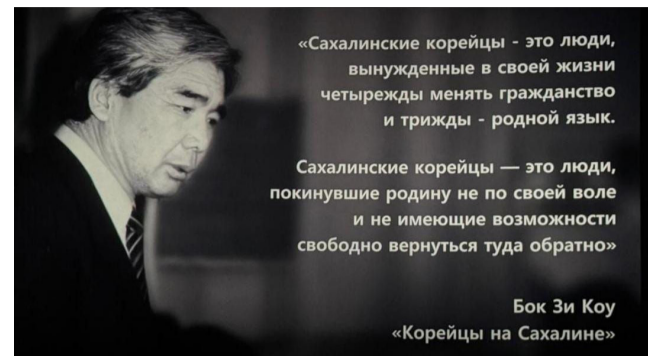
이 영화는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모든 비용은 프로듀서와 감독이 직접 부담했다. 자금은 주로 아카이브 자료 구입과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인터뷰 촬영에 사용되었다. 제작진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외 인터뷰는 그 나라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화제

작 작업은 제작자들이 직장에서 퇴근 후 여가 시간에만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촬영, 시나리오, 연출, 편집 등이 모든 작업을 안톤 도카 감독이 직접 맡았다. 그리고 영화음악까지 제작했다.

영화 상영 후 진행된 토론에서 관객들은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관객들은 재상영을 요청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봉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관객은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영화에 담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 영화를 한 번만 상영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 관객은 "이 영화는 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봐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객은 "이 작품은 사할린 한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완벽하게 조명해주었어요."라고 했다.

"우리 사할린 한인들에게 이 영화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과서가 될 거예요."이란 의견도 표명되었다.

"영화의 모든 요소가 놀랄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세계사 속에서 펼쳐진 사할린 한인의 역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세심하게 구성된 해설과 절제된 연출, 영화를 더욱 빛내주는 음악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란 한 관객의 말에 모두가 동감한 것 같다.

"세르게이 하와 안톤 도카는 완전히 전문적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다룬 규모가 크고 다층적인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만, 그 성공의 비결은 더 깊이 담겨 있습니다. 관객들은 울고, 웃고, 박수 치며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와 사람

들에 대한 따뜻함과 존경으로 만들어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즉 사할린 한인들의 상실의 아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어려움, 굶주림, 추위와 모욕. 비인간적인 현실을 견디며, 이겨내는 한인의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 인내, 전통에 대한 충성, 어른에 대한 공경, 그리고 놀라운 근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김상순 전문 영화평론가가 말하였다. "이제 이 영화가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사할린 동포 3세인 도카 안톤(41)과 하 세르게이(39)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 영화를 시작했는데, 알아낸 것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백했다.

현재 제작자들은 사할린 주의 여러 지역과 한국의 안산에서 영화 상영 방법을 찾고 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 이모저모

### 전국 '체육인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사에 천여 명 모여

전 러시아 체육인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행사를 치른 가운데 행사의 공식 중심지는 시공원 내 코스모스 경기장이었다. 이곳에서 정오에 사할린 스포츠 분야 대표자들의 축하행진이 열리고, 각 스포츠 분야에서 2024년 '사할린주 스포츠 엘리트' 지역 경연의 우승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가가린 문화 및 휴식 공원과 코스모스 경기장은 스포츠 생활의 중심으로 변모했고, 방문객들의 기호와 준비 수준을 고려한 풍성한 행사 프로그램은 수십 가지의 스포츠 활동을 제공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코스모스 경기장에서는 리듬체조, 미적그림체조, 가라테, 칼 던지기, 태권도, 공중공연, 권투, 스노보드, 펜싱, 탁구, 격파, 스포츠 에어로빅, 에어소프트(survival gam) 경기가 열리고, '오렌지 볼' 전 러시아 농구대회 지역단계 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공원에서는 아동과 성인을 위한 럭비 경기가, 배구 경기장에서는 씨름대회가 열렸다. 댄스 행사장에서는 노르딕 워킹 전체 출발 경기와 치어리더의 시범공연이 펼쳐졌다.

###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ъединил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размахом отмети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Официальным центр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стадион "Космос", в полдень здесь прошёл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ара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спортивной сферы, за которым последовала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Спортивная эли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С самого утра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и стадион "Космос"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эпицентры спортивной жизни.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аздника предложила гостям десятки активностей на любой вкус и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рассказываю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работали площадки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и эстетической гимнастике, каратэ, метанию ножа, тхэквондо, воздушной акробатике, боксу, сноуборду, фехтованию,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брейкингу, спортивной аэробике и страйкболу. Здесь же прошё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баскетболу "Оранжевый мяч".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также прошли состязания по регби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на волейбольной площадке — турнир по пляжной борьбе. На танцев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состоялись масс-старт по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е 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 чир-спорту.

### Невельск, <сahal린 참치의 날> 축제 열려

8월 9일(토) 네벨스크에서 <사할린 참치의 날> 생선-미식 축제가 시작되어 연해주를 비롯해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홉스크, 네벨스크, 키프로스에서 온 선원들로 구성된 13팀이 첫날 참치잡이를 하러 바다로 나갔다.

참치잡이에 나선 모든 팀들이 예외 없이 참치를 잡고 돌아왔다.

'와실리사'팀은 97kg의 참치를 잡아 이날 최고의 성과를 내어 이틀간 진행된 경기 결과 이 팀은 여지없이 최고의 성과로 최우승을 차지했고, 2위로 '샤크스(Sharks)'팀이 차지했다. 이들의 참치잡이 성과는 진정 성공적이었으며, '샤크스'팀의 이번 참가는 세 번째 참치잡이로 바다에 나갔다. 3위는 '워드니크'팀이 차지했다.

각 팀들이 상금을 놓고 경쟁한 가운데 1위에게는 15만 루블리, 2위에게는 10만 루블리, 3위에게는 5만 루블리의 상금이 주어졌다. 상을 수상한 팀들에게 값진 상품과 협력사들이 제공하는 기념품을 수여했다. 낚시인들이 참치잡이를 하러 나간 동안 축제 방문객들을 위해 바다사자의 서식지를 둘러보는 보트여행이 조성되었고, 다양한 활동교실이 열렸다. 가장 어린 방문객을 위해서는 활동 공간도 마련되었다.

### В Невельске прошёл фестиваль «Ден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нца»

В субботу, 9 августа, в Невельске стартовал третий рыболовно-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Ден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нца». В первый день 13 экипажей рыбаков из Приморья, Москвы,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лмска, Невельска и даже с Кипра вышли в море на охоту за тунцом. Все команды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вернулись с уловом. В этот день команда «Василиса» привезла улов на 97 килограмм, это был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дня. По итогам двух дней эта команда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показав наи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На второй строчке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оказалась команда Sharks. Для ее участников такой результат стал настоящим успехом — это был их третий выход в море. Третье место у команды «Водник».

Команды боролись за денежный приз: 1-е место — 150 тысяч рублей, 2-е место — 100 тысяч рублей, 3-е место — 50 тысяч рублей. Команды-призеры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подарки, ценные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от компании-партнера.

Пока рыбаки были в море,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тоже не скучали: для них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морские прогулки на катерах к лежбищу сивучей и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гостей работала отдельная зона с активностями.

### 러시아에서 통신 차단 시, 중요한 앱에 접근하도록 허용

디지털개발부는 러시아 국민들이 인터넷이 차단되는 조건에서도 중요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신의 비상체계를 설정했다고 '통신의 진화' 콘퍼런스에서 막수트 샤다예브 디지털개발부 장관이 발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화이트 리스트'에 접속해 들어가 거기서 택시 앱, 배달 앱, 인터넷 쇼핑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연결속도 또한 유지된다. 샤다예브 장관은 "이러한 서비스는 가장 우선적인 서비스로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어도 접속이 유지될 수 있길 우리 바란다."고 강조했다.

(8면에 계속)

## 8월15일 광복절 맞아

## 사할린동포들에게 광복절은?

매년 8월 15일,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인 광복절을 기념한다. 이날은 1945년 한반도가 35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날로, 경제적 착취와 한국어 사용을 금지, 징용 등 가혹한 군사적 식민 억압의 체제가 종식된 날이다. 이 국경일은 1949년 제정되어 남북한 모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광복절 맞아 한인 사회 단체들이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많은 사할린동포의 가정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며, 공연, 씨름대회, 태권도 시범, 한식(비빔밥, 떡 등) 시식, 요리 및 공예 체험 활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할린한인들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리는 동시에 조상 추모의 날로 그 의미를 새긴다. 한국에서는 보통 음력 8월 15일 추석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지만, 사할린 동포들은 주로 양력 8월 15일을 '조상 차례'로 정해 묘소를 찾아 전통 의식을 치른다.

필자는 코르사코브 한인들에게 광복절 날에 대해 알아보았다.

## 김순자(교사, 36세):

"우리 가족은 매년 광복절과 조상의 날을 기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르사코브 한인디아스포라 단체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고, 8월 15일 조상의 묘소를 방문하

는 하죠. 민족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한민족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학생, 20세):

"우리 가족은 광복절을 달리 기리지 않고 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찾아갑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역사적 의미 뿐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 어떻게 사할린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 되새기기 위해서죠. 해방 덕분에 한국인들은 비로소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었고,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하며 문화와 전통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 박 웨로니카(간호사, 41세):

"광복절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은 묘소를 찾아가고, 한인 단체에서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며, 전통놀이를 즐깁니다."

## 김 알렉산드라(교사, 38세):

"광복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이날은 추모의 의미도 있으며,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행사에 참석하지 않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 마르가리타(사회복지사, 48세):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문

화행사가 열릴 때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곤 했어요. 도심 광장과 공원에서 열리는 각종 전통놀이, 경연대회, 축하 공연은 정말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별군사작전 상황 등의 영향으로 행사 참석보다는 가정에서 조용히 기리는 편이에요.

## 한이자(의료보조원, 46세):

"광복절은 한반도가 일본의 침략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날을 기리며, 집에서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 모임을 가집니다.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이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민지 시대의 어려웠던 이야기와 해방의 기쁨을 전해줍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한인단체가 매년 도시 광장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꼭 참석하는데, 전시회, 공연, 다양한 경연 대회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민족의 역사를 기리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운광(연금수급자, 68세):

"우리 가족은 매해 이날을 기립니다. 아침에는 조상(부모님)님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족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코르사코브 한인디아스포라협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행사에도 참가합니다. 조상의 역사와 전통을 젊은 세대에 전하는 것은 중요하며, 모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 (사할린국립대학 이정옥 학생)

##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동방경제포럼 적극 준비

## (1면의 계속)

극동 연방대학 구역과 캠퍼스의 준비상황에 대해 이 대학의 보리스 코로베츠 총장의 보고에 따르면 로스콩그레스와 '즈나니에' 러시아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동방경제포럼을 진행하면서 벌써4번째 연해주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강연이 열리고 있는데 올해 주요 강연 주제 중 하나는 대조국전쟁 승리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조국: 역사, 전통, 단결>이다.

이에350명의 대학생들이 강연에 직접 참여하고, 850만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극동연방대학 주요 캠퍼스의 포럼 행사장에서는 <극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방 정부기관들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전시장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 도로교통부, 러시아 검찰청, 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러시아 비상대책부, 러시아 교육과학부 등 7개 부처가 전시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극동의 거리> 전시회가 개최되어 11개의 극동 지역들 모두가 각 부스에서 전시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스포츠부(전 러시아

아 체육-스포츠단지의 사업 및 경기장)의 2개 부스와 <극동을 개발하자> 극동개발공사 부스, <매의 집>러시아 천연자원부 부스, <러시아 연방 관광공사>합자회사의 부스가 마련된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투자계획 실행 덕분에 우리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서보다 더욱 높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과제는 올해 우리의 사업활동을 총결하게 될 동방경제포럼이 양호한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일본군 종전 후 사할린서 조선인 학살, 러 자료서 추가 확인"

##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당시 수사자료 입수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1945년 8월 15일 패전한 일본군이 9월 초순까지 사할린 남부에서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 러시아 정부 보유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패전 후 일본군의 사할린 지역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는 8월 17일 18명이 살해된 가미시카 사건, 같은 달 20~25일 28명이

살해된 미즈호사건 등이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 확인된 사건은 구 소련군과 일본군 간 전투가 끝난 25일 이후인 9월 초순까지 전개됐다.

새로 확인된 학살 사건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담당자가 2019년 러시아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구해 2021년 복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24년 현지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남 사할린 북서부 지방에

서는 8월 15일 구 소련군 공습 중에 신호를 보냈다는 스파이 혐의로 조선인 남성이 일본군에 의해 총살됐으며 이 조선인 시신은 일본군 27명의 총검 훈련용으로 쓰였다.

같은 날 북동부 지방에서는 일본군과 함께 의용대에 소속돼 있던 조선인 남성이 의심받아 역시 총살됐으며 9월 초순에도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게 폭로할 것으로 의심을 산 조선인 남성이 총살됐다.

이와 관련해 미즈호사건에 정통한 이노우에 고이치 훗카이도대 명예교수는 "소련군이 남하하면서 지상전이 임박하자 일본의 군국주의가 조선인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노우에 교수는 "당시 수사 자료는 소련 시각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이나 조선 측의 시점은 결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역사 문화캠프 첫 개최

## 8월13일 개최식과 함께 나흘간 서울과 수도권 및 충청도 일대서 진행

## 러시아·CIS, 중국, 베트남 지역에서 온 21명 중고생 참여 광복 80년 의미 담는 행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내체류 재외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캠프에는 러시아·CIS, 중국, 베트남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인 동포 중고생과 대학생 멘토 등 25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첫 일정으로 13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방문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열린 개최식에 참가했다.

참가 청소년들을 맞이한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를 갖고, 한국에 중도입국했다는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모국에서 꿈을 키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개최식에 이어 인천에 위치한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이동해 우리 재외동포들의 이민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튿날인 14일에는 충남 천안에 있는 유관순열사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을 찾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15일에는 경복궁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하고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분단의 역사, 평화의 의미 등을 배울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캠프 참가자 소감 발표, 중도입국 재외동포 대학생 멘토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재외동포이면서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캠프는 중도입국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비슷한 이주 경험을 가진 또래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모국에서 잘 적응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참가자들은 사전조사에서 "나의 뿌리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비슷한 이주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고 싶다", "캠프를 계기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나와 같은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도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 (재외동포청 제공)

광복 80주년 맞아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를 소개한다.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력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강 표도르

관리번호	95268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강표도르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외국 러시아 이만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 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페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군정위원이자 통역을 맡았던

강표도르도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 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소 미확인

## (편집 이철수)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ест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фокусе истории Дебютный фильм собрал аншла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реддверии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2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в большом зале кинотеатра «Октябр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Аншлаг был полным – все 522 места оказались заняты, а у входа в кинотеатр зрители просили «лишний билетик».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кропотливой работы и результат – 100 минут пронзительного кино. Для продюсера Сергея Ха и режиссера Антона Дока этот проект стал дебютом в документалистике. Реакция зрителей – крики «Браво!» и искренние признания: «Вы сделали великое дело!» — лучшая награда для создателей.

Фильм создан на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снове – все расходы взяли на себя Сергей и Антон.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ушли на уникальные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и съемки интервью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збекистане и Казахстане,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 коллеги на местах.

Картина получилась тонкой, умной, вызывающей глубокие эмоции. В ней органично сочетаются комментарии экспертов – историков, корееведов, музейных работников – и трогательные рассказы пожилых людей, вызывающие слезы. Отде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заслуживают исторические кадры, которые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для фильма.

Съемки, сценарий, режиссура, монтаж и даже авторская музыка – все это работ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Антона Доки. Именно с благодарности ему и всей команде начинали зрители, решившие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во время обсуждения фильма, прошедшего сразу после премьерного показа. Зрители просили о повторном показе, говоря, что многие желающие не смогли попасть на премьеру. Как сказала одна зрительница: «Этот фильм нужно смотреть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ам, но и всем жителям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воим мнением о фильме поделилас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инокритик Ким Сан Сун: «Сергей Ха и Антон Дока создали абсолютн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кино. Это фильм о нашей истории – первый настолько масштабный и многослойный, с интервью десятк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реальных свидетелей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XX века. Картина исторически достоверна, но секрет ее успеха – в чем-то большем. Зрители плакали, смеялись, аплодировали и кричали "Браво!". Фильм сделан с такой теплотой и уважением к истории и людям, что затрагивает самые сокровенные струны души: боль утраты, тяжелое вживание в новую реальность, голод, холод и унижения. Ведь корейцам свойственны нечеловеческая стойкость духа, верность традициям,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и невероятное трудолюбие».

Ценной находкой для структуры фильма стала книга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авторства Бок Зи Коу – легендарной личности, блестящего экономиста, профессора, основателя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 экономики в СахГУ и одного из создателей Общества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Фильм начинается с его портрета и цитаты, а затем использует его мысли как смысловые вехи повествования. Именно памяти Бок Зи Коу решили посвятить фильм его авторы.

«Профессора знал весь Сахалин. Он направил на верный путь многих, в том числе и меня. Однажды он сказал мне: "Ты талантливо пишешь... Но этого мало!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ты должна знать свое дело лучше всех!" Эти слова я помню уже полвека», – поделилась Ким Сан Сун.

«Так же, "лучше всех", работали Антон Дока и Сергей Ха.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им за этот труд! Они подняли гигантский пласт истор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Теперь будем ждать, чтобы этот фильм увидели на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кинофестивалях», – заключила кинокритик.

Антон и Сергей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волновались перед премьерой, буквально ловили каждую реакцию зрителей. Некоторые отклики оказались неожиданными, но все – искренними и теплыми.

Сейчас создатели мечтают показать фильм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и в корейском Ансане, где живут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Чем глубже мы погружались в материал, тем сильнее росло наше чувство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 первому поко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признаются авторы.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втор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 Петиция Его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у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рого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Чон Хи (1)!

Мы,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 которые уже 27 лет живут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выражаем свою волю через эту петицию. Мы переполнены чувств и эмоций от участи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событии — референдуме по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3),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сегодня.

Его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у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Чон Хи!

М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пытываем глубок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и отчаяние. Мы, хотя и являемся граждана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4), но вынуждены получать паспорт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5), чтоб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Мы,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не можем даже пошевелиться, но мы решили опустить эту петицию в почтовый ящик.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и одобряем все меры, принятые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Чон Хи с момента принятия Декларации 15 августа (6). Мы искренне надеемся, что будет принята более сильная Конституци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искоренить зло в стране, чтобы все граждане могли спать спокойно, не закрывая двери.

Мы верим, что только неустанный движенье вперед, шаг за шагом, приведет к мирному воссоединению отечества. Вс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держанные на этом острове, сообщают, что они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ют реформу Конституции и желают, чтобы день мирного воссоединения нашей страны наступил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аше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о,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Чон Хи! Мне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шей страны принимает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держанные на этом острове, вернулись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Японии.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участвует господин Пак Но Х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задерж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й в Токио.

Однако после 27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даже у родителей и детей разные гражданства, молодые люди не знают родного языка, и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затянулась. Поэтому мы искренне просим вернуть нас на родину, выехав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Японии.

Прошло несколько лет с тех пор, как мы, неграждане, обратились к глава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просьбой разрешить нам выехать в Японию и получил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т местного чиновника о том, что если у нас будет въездная виза от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о нам будет немедленно разрешено выехать из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в 1957 году были приняты заявления о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в Японию, и некоторым наш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было разрешено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но впоследствии это было остановлено (7).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многое. Я завершу своё письмо молитвой о долгой жизни и здоровье Его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а Пак Чон Хи, который открыл путь к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нашей страны.

21 ноября 1972 г.  
Сахалин, г. Томари  
Чон Гу Со (鄭九召 정구소)

#### Комментарии:

(1) Пак Чон Хи ((1917–1979) –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17 декабря 1963 по 26 октября 1979 года. Считается противоречивой фигурой –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ак Чон Хи известен как авторитарный правитель, проводивший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пресси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ак Чон Хи – отец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на реке Ханган»,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Южная Корея за полвека превратилась из аграрной страны, разрушенной японским колониализмом 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процветающую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Пак Чон Хи был убит 26 октября 1979 года. Он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отцом Пак Кын Хе –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13–2017 годах.

(2) Фактическ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были гражданами Южной Кореи, так как связь с родиной прервалась в 1945 году, 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а учреждена в 1948 году.

(3) В ноябре 1972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оялс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референдум,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Пак Чон Хи с целью легитимизации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известной как «Конституция Юсин». Референдум проходил в условиях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ограни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свобод и подавления оппозиции. Основные изменения включали радикальное усиле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власти, отмену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переизбрани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 соз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за объединение – органа, который фактически контролировал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Офици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али высокую явку (91,9%) и подавляющую поддержку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91,5% голосов), однако эти данные подвергались сомнению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свобод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и давления на избирателей. Референдум 1972 года закрепил переход к «Четвёртой республике» — периоду усиления диктатуры Пак Чон Хи, продлившемуся до его убийства в 1979 году.

(4)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хранял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том, что являются выходцами из юж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стремились вернуться именно в те населённые пункты,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в составе Южной Кореи. Однако после 1956 года они поддавались уговор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и соглашались «приня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аспорт», то есть официально становились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Всего около 11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афиксированных в советских документах как «бывшие жители япо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о») име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зже, разочаровавшись в политике КНДР, многие из них стали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ее паспортов.

(5)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документ, удостоверяющий личность и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апатрида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доставившего этот документ. Он подтверждает законн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и обычно дает право на работу, социальные услуги и защит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для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помогает защитить их права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интеграции в общество, хотя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апатриды по-прежнему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массовое перемещ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ривело к появлению большого числа апатридов. Множ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фициально были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так как были лишены япон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не могли оформ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и не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гражданство СССР. Только в 1978 году был принят советский закон, который закреплял за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при рождении.

(6) Возможно, имеется в виду 15 августа 1948 года – день, когд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соз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стал Ли Сын Ман.

(7) В 1956 году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заключил с Японией Москов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из СССР смогли выехать в Японию оста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японцы с супругами (в основном, корейцами) и детьми.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последующих лет было репатрировано около 2000 человек.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крыло возможность репатриации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оекта и стало настаивать, что все остальные желающие должны выезжать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подав личное заявление. Эти заявления собирались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отправлялись в советский МИД, который и занимался отправкой людей. Возможно,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лись и массово. Однако, выеха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Бок Зи Коу, удалось 6 человекам – Сон Си Киу в 1971 г., Че Ден Сик в 1975 г., Хан Юн Су, Мун Кан Ир, Кон Дзе Кон в 1983 г., и И Ток Рим в 1989 г.

Юлия Дин, к.и.н.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15 августа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Назначение народом»

Ли Чжэ Мён, приступивший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К сразу после выборов без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и официальной инаугурации, проведёт церемонию «Назначение народом». Она состоится 15 августа, в день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Сеуле. После выборов Ли Чжэ Мён лишь принёс присяг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и пообещал позже провест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граждан. Как заявила 13 августа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Кан Ю Чжон,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дес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детей освобождения», родившихся в 1945 году, а также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Приглашены все бывшие президенты,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остаётся под стражей по обвинениям, связанным с попыт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Бывшие президенты Пак Кын Хе и Ли Мён Бак заявили, что не смог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встретятся 25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Ли Чжэ Мё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встретятся 25 августа в Белом доме,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Как сообщили 12 август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Хе Гён отправится в Вашингтон 24 августа. Это будет его первый визит в США с момента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в начале июня.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н Ю Чжон,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ят пути превращ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альянса во всеобъемлющ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альянс,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будущее, в ответ на меняющуюся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бстановку в сфер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экономики. Они обсудят такж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таких передовых областях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аккумуляторов, а также в судостроении.

## Действия Юга и Севера могут помочь возобновлению диалога

Взаимные дружеские действия Юга и Севера могут помочь возобновл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12 авгус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емонтаж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част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установленных в пограничной зоне. Пхеньян предпринял данный шаг после того,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лностью демонтировала аналогичные устройства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Как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эти устройства не нужны. Кроме того, они требуют больших затрат». Он призва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одолжить демонтаж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должны перейти от причинения взаимного вреда к укреплению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 Остан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Останки шест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охороненных за рубежом,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Это произошло накануне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которое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15 авгус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группы сопровождения останков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США, Бразилию и Канаду. Останки Мун Ян Мока, основателя группы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Сан-Франциско,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спустя 120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покинул родину в 1905 году. Он умер в 1940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направило делегации в Лос-Анджелес и Атланту для репатриации останков Им Чхан Мо и Ким Чжэ Ына. Из Бразилии прибыли останки Ким Ги Чжу и Хан Ын Гю, а из Канады – останки Ким Док Юна. 13 августа они захоронены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Тэчжон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с 1946 года на родину вернулись останки 149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Теперь ещё шесть борцов обрели вечный покой в родной земле.

## Цель специальной амнистии -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Специальная амнистия, приуроченная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и ожи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1 августа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ан Ю Чжон. Она напомнила, что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вне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Ли Чжэ Мён утвердил список на амнистию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 правах для 2.188 человек. В список вошли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бизнесмены и лица, совершившие мелкие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В числе амнистированных – бывший лид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Чо Гук, который отбывает двухлетний тюремный срок за якобы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лужебного положе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его детьми льгот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 и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ого органа.

RKI

## О праздновании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Ежегодно 15 августа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 отмечается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праздников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или Ден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В этот день в 1945 году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освобождён от 35-летней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когда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жёсткая военно-полицейская система насилия и угнетения, запрещавша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аздник был введён в 1949 году и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занимаются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посещают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в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ых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ове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 ссырым, демонстрация навыков местных тхэквондистов, дегустация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пьянсе, бибимпап, тток и т. д.), проведение различ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 и 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На Сахалине 15 августа корейцы отмечают не только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но и поминуют родителей... Как известно, в Корее праздничное поминовение родителей совершают на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приходится на 15 август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Для мно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дительским днем» стало 15 августа по грегорианскому календарю. Они посещают могилы, совершают традиционные обряды. О том, празднуют ли семь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поделились жители Корсакова.

### Ким Сун Дя, учитель, 36 лет:

Наша семья каждый год отмечает Ден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и родительский день. Мы всегда стараемся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пасть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город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и посещать могилы наших предков. Конечно, мы считаем важным отмечать люб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или памятный день. Это помогает сохранить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Пак Матвей, студент, 20 лет:

Наша семья не отмечает праздник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место него мы отмечаем родительский день,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близких.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я считаю важным не забывать об этом дне, чтобы помнить об истори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 том, как и почему они оказ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ак наконец корейцы перестали быть в угнетённом положении 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могли построить независим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котором мы можем навещать род-

ственников, 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Пак Вероника, медсестра, 41 г.: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 это день, когда корейцы чтят усопших. Наша семья поминает усопших, ходит на кладбище, ходит на праздничные концерты, играет 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 Ко Маргарита, социальный работник, 48 лет: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Корея была освобождена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Раньше, когда проводились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ы всей семьёй их посещали.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на центральных площадях, в парках с различными играми,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и концертами. Сейчас не посещаем мероприятия. В связи с СВО праздник стал больше семейным.

### Ким Александра, учитель, 38 лет: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празднуется 15 августа, означает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от власти Японии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Этот день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поминанием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ы отмечаем данный праздник, хорошо зная историю и чтить память наших предков.

### Хан И Дя, фельдшер, 46 лет: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 э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дата, связанная с освобожд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й интервенции. Также в этот день проводят поминание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ы отмечаем данный праздник в кругу семьи. Готовим угощения, проводим беседы: рассказываем молодым людям о различных событиях, традициях, связанных с этой датой. Я и моя семья посещаем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торые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ся на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Конкурсы, выставки, выступления – все создает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Безусловно, отмечать данный праздник нужно, чтобы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помнило историю своей нации, не забывало традиции, привносило вклад в этнокультуру.

### Ким Ун Гван, пенсионер, 68 лет:

Данный праздник наша семья отмечает. Утром поминание предков (родителей), далее собираемся дома в кругу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ы посещаем выступл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г. Корсакове. Да, конечно, необходимо помнить историю своих предков, передавать память, традиции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при этом не теряя связь со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Подготовила Ли Ден Ок,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 "Голубой дом" Южной Кореи: опять без туристов и снова для президента

###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плекс Чхонвадэ с 1 августа закрыт для посещения

С 1 августа легендарная резиден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езидентов - Чхонвадэ (также известная как "Голубой дом") - официально закрыта для посещения туристов. Причина - подготовка к возвращению туда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ле более чем трехлетнем перерыва резиденция вновь станет рабочи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и жильем для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Чхонвадэ с 1948 года служил официальной резиденцией и рабочим местом для 12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езидентов - от Ли Сын Мана до Мун Чжэ Ына. Все изменилось в 2022 году, когда новоизбранный Юн Сок Ёль перенес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в район Ёнсан - в зд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объявив это "разрывом с авторитарным прошлым". Чхонвадэ был передан под упра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у культуры и стал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С момента своего открытия для широкой публики 10 мая 2022 года (в день инаугураци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Чхонвадэ посетили более 8,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Это место стало одной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Сеула, символом открытости и попытки дистанцировать власть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имперской" атмосферы.

Однако это решение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вызвало много споров: резиденция все же находилась в стороне от центральных кварталов города, позволяла эффективно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никому не мешала. Чего не скажешь о перемещении Юн Сок Ёля в резиденцию в Ёнсане, в самом центре города. В итоге попытка введения Юно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его импичмент сразу же поставили крест на попытке

избавиться от Чхонвадэ. В этом план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политики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были едины - президенту надо уехать из Ёнана и вернуться в "Голубой дом".

Победивший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3 июня Ли Чжэ Мён тоже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заявлял о намерении вернуть президента в Чхонвадэ. В итоге теперь начинается обратное движение: президент возвращает себе прежнюю резиденцию. На июньском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ыло утверждено выделение 25,9 млрд вон (около \$19 млн) из резерв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монт, установку новых сист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одготовку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эти работы к концу года.

Пока точная дата переезда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Чхонвадэ не объявлена. Власти лишь заявляют, что "по завершении обновления" часть территории,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вновь открыта для ограниченного доступа туристов.

Интересно, что накануне закрытия "Голубого дома" для публики в июл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резко выросло - более чем на 240% за 40 дней. С середины июля доступ туристов стал ограниченным: были закрыты помещения, уменьшено количество групп (до 200 человек за сеанс), оставались доступны только отдельные открытые участки.

И вот с 1 августа ворота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крылись. "Голубой дом"-Чхонвадэ возвращается к своему прежнему статусу, и для миллионов корейцев это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не столько как шаг назад, сколько как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орядка, где символика и реальная власть совпадаю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открыли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и «взяли штурмом» пост Хандас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1 августа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80-летию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Роцино открылся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ели шестую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штурма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 самую масштабную и зрелищную.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у на 50-ой параллели произошли первые ожесточенные сражения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с японскими милитаристами. Двое суток бойцы Красной армии прорывали оборону неприступного укрепленного района. Пост Хандаса был обнесен высоким земляным валом, где через каждые пять метров располагались бойницы, а с северной части – два пятиамбразурных ДОТа, колючая проволока,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й ров и бурная река. Красноармейцы проявили небывалое мужество и вырвали победу у противника –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Японии.

На эт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мест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еравнодуш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оздали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обустроили парковку и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где сегодня более 1000 зрителей наблюдали з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ей. Чтобы она стала еще более достоверной,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восстановили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и установили боевую технику.

– Сегодня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героической 50-ой параллели. На границе, которую перешли красноармейцы 80 лет назад. Ценой своих жизней они взяли японский укрепленный район и водрузили здесь красный флаг. Это был один из финальных аккордов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На эт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ах проливалась кровь наших воинов, и память о них будет жить вечно. И сегодня наследники герое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 мужественно защищают западные рубежи Родины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е жалея себя, они идут в бой за то, чтобы наша великая держава была свободна и независима, чтобы наши люди говорил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Мы победили тогда и победим сейчас! – обратился к зрителя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смогли ощутить, какой подвиг совершили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60 реконструкторов из 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оссоздали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 Поисковики и историки проделали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достоверно показа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региона подвиг народа-победителя. Были воссозданы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которые дают точ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ак оборонялись японцы. Сохранились только три фотографии, где запечатлены наши бойц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взятых укреплений. По ним мы смогли узнать, какое у них было оружие и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Сценари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зили к реальным событиям. Все действующие лица облачились в копии формы бойцов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Японии. В бою использовали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о светозвуковыми холостыми патронами. Воссоздали штурм укрепленных позиций с помощью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го орудия и пехоты. Задействовали снайперов, саперов, пулеметчиков, санитаров.

По окончани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се желающие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боя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ыставкой оружия времен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Чудес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о мурашек. М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6 утра выехали, но не могли такое пропустить. Мы как будто оказались в кинофильме. Невозможно сдержать слез. Гордость берет за наш народ. Побольше бы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 поделилась зрительниц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рина Смирно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развернулось множество интерак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Посетители 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росписи армейских кружек, изготовлению фронтовых кукол и эскизов углем, сборке и разборке автома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также выставки, тематические фотозон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гры, солдатскую чайную, полевую кухню. Развернулась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ярмарка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 фронту». А концертная фронтовая бригада исполняла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песни и создавала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 Экскурси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план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и общение с экспертами: сформирова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ОстроВ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Ва»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 Форум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8 сентября по 5 октябр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дготовле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олезная и атмосферная программы. Ребята разработают каталог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лодежи, подготовят план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и сформируют образ «Проводника карьеры».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форум уже завершена — 6669 молодых людей подали заявк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соберётся около 62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участников, волонтеров, экспертов 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сформирована программа, идёт работа над итоговыми продуктами форума.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направлений мы прорабатываем все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Наша цель — создать чёткую,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ую архитектуру защиты ключевых продуктовых гипотез, разработанных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совместно с внутренними и внешними заказчиками. Заказчиками являю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молодёжь, партнёры,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Именно в такой тесной связке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программа. Каждый продукт — это вклад в единый клиентский пу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в регионе. Поэтому мы знакомим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с регионом, демонстрируем возможности, доступные молодым людям. Но кроме этого, нам важно показать им самим их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Иногда они просто не замечают свои достоинства,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ёнок.

Вместе с экспертам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создадут единую форму «Плана успеха»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Он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 ориентиры и возможные этапы с учётом мест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отраслевых вызово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перспектив.

– Цент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разработал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роводники карьеры», где специалисты в сфере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получают знания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последствии эта программа поможет молодым сотрудникам эффе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в центрах карьеры в вузах и колледжах. Нам важно получить от ребят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кто мог бы стать для них наставниками, и ка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должен обладать «Проводник карьеры». Важно услышать их мнение, ведь это контроль качества нашей работы и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 дополнила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ёнок.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 Форумы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агают оценить сервисы развития для молодёжи. Среди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 «Твой ход», «Код будущего», «Работа России» 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протестируют действующие версии приложений и предложат собственные идеи по их развитию.

Каждое утро ребят будет ждать совместная зарядка и другие спортивные активности на выбор — бег или плавание.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йдёт сразу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арт-резиденция «Маяк», центр «Сахалин-Экспо», БЦ «Айхор», комплекс «Сахалинтех Алаид». Все участники разместятся в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м центре «Восток».

–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три ключевые темы: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Будем обсуждать их с различных точек зрения. В роли экспертов выступят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мамы, успешно сочетающие карьеру и семейную жизн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ессий из разных сфер, готовые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и вдохновением, — пояснила программный директор форума Анна Юнак.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ют экскурси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и п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тречи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защита проектов на конкурсе Росмолодёжь. Гранты. Победителей объявят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форума 4 окт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Росмолодёжь)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ервые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 по рекультивации свалок ТБ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ервые проводят рекультивацию свалок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Ход работ на закрытом полигоне ТБО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 2024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велась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земель, занятых свалками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Полигон ТБО на выезде из города Анивы вошел в число объектов, которые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а «Развитие полигонов ТБО, рекультивация». Свалка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расположенная на выезде из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эксплуатировалась 20 лет. В 2019 году она была закрыта. Работы по рекультивации стартовали летом 2024 года.

– Разработан котлован. На техническом этапе подготовлено основание, его ложе выложено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ым слоем — бентонитовым матом и геомембраной. Потом укладывается защитный слой песка и дренажный слой. Далее происходит надвижка свалочной массы. По периметру обустраивают систему сбора дренажной воды. На биологическом этапе вносят плодотворную почву с удобрением и высаживают многолетние травы и кустарники. И главное —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истема пассивной дегазации: через трубы будет выпускаться свалочный газ посл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чистки через фильтры, — доложил губернатору и.о. министра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Ли.

Работы по рекультивации полигона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подрядчиком в июле 2026 года. По опыту регионов, где

проведены подобные работы,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ных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ерриториях по прошествии времени появляется растительность и возвращаются животны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 рекультивации входит в комплекс мер по улучшению экологи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ряду с возведением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хозяйственно-бытовых сточных вод в Аниве, селах Новотроицкое и Таранай.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 критический вопро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идет задержка на одном из объектов в Новотроицком,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переносится на май-июнь будущего года. Я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чтобы Анивский залив был чистым. К открытию пляжного сезона в 2026 году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уже должны быть сда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Аниве и селе Таранай завершится в текущем году

Еще более 30 муралов преобразят до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тартовал второй сезон арт-проекта «Взгляды: изнутри и снаружи». 15 худож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украсят фасады более 30 домов, в том числе в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город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кануне посмотрели, как преобразится северный торец дома на Емельянова, 7. Над ним работает художник из Москвы Антон Спутник. В прошлом сезоне «Взгляды» он подарил городу девушку с Красной книгой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39. Сегодня воплощает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ыбирает жизненный путь.

– Этот концепт называется «Перипетия». Он о том, как человек оказывается в сложной, запутанной ситуации. И он разматывает эти нити мыслей, превращая их в клубки — как символ пройденных жизненных этапов, воспоминаний о них и приобретенного опыта, — поделился художник.

В истории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есть продолжение — еще два мурала появятся на соседних домах. «Ориентир» расскажет о поиске призвания. Маяк на мысе Терпения — как путеводная звезда, и на нем растут пионы — цветущий результат любимого дела. Завершающие триптих «Смыслы» станут размышлением о смысле жизни. Пионы раскрылись крупными бутонами. Цветок расцвел и в груди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и пустил нити к остальным.

–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работам архитектура наших городов становится интереснее. Мне нравится иде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муралы связаны друг с другом. Будто листочки страницы одной книг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ут гулять,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расивые работы и придумывать свои истории. Мне кажется, можно продолжить рассказ об этом молодом человеке и помочь найти ему спутницу жизни. Предлагайте эскизы, и мы поддержи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работаю ещ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 этого был в Хабаровске, Вологде, но Сахалин впечатлил больше всего. Наслаждаюсь местными видами и воздухом, — поделился Антон Спутник.

В этом году муралы украсят не только дома на центральных ул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в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и селах — Дальнем, Луговом,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Синегорске, Санаторном. К примеру, в Дальнем художник из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Андрей Оленев изображает триптих о герое — исследователе, географе и художнике.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уралы украсили 50 домов в нашем городе. Этот проект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мы продолжаем его. Провели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и пригласили худож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Также мы в ожидании приезда мастера из Испании, который владеет уникальной техникой. Завершить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домов планируем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помним, в 2024 году прошел первый сезон арт-проекта «Взгляды: изнутри и снаружи».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получил более 300 заявок от авторов из России, Сербии, Турции, Германии, Испании.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выбрали 33 победителя. Они украсили муралами 50 объектов и преобразили 12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город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уралы расположены так, чтобы создавать пешеходные и велосипедные маршруты: «Молодёжный» — по Комсомольской; «Видовой» — по проспекту Мира;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а» — по Ленина; «Морское освоение Сахалина» —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и Невельского. Главной темой второго сезона арт-проекта в 2025 году стала «Система координат», где каждый объект станет основой для городской навигаци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еобразают архитектурный облик не тольк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о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на островах. В 2024 году 11 муралов появилось в Поронайске, 6 — в Долинске, по 4 — в Корсакове, Томари, Углегор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В этом году украсят также 10 домов в Долин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Охе.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художники создали более 150 мурал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청, 광복 80주년 기념 고려인 · 중국 동포와 봉사활동 전개

## 청 직원 및 동포 15명, 서울 영등포복지관 '장난감도서관'서 봉사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광복 80주년, 과거의 연대를 오늘의 나눔으로 이을 것"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임직원과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 및 중국동포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합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정영순 회장), 전국동포총연합회(김호림 총회장) 및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김세광 총회장) 회원 15명은 11일 이 복지관의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소독하고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 2013년 개관. 만 6세 이하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자유놀이,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시행(일 평균 40명 방문)

재외동포청은 올해 들어 국내 체류 동포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와 격월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두 동포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11만명)는 독립 운동을 지원했던 중앙아시아 이주 선조들의 후손이며, 중국동포(67만명) 또한 과거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 안나나 이사는 “연초 배식봉사에 이어 또 한 번 재외동포청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중국동포와 함께 하며 우리 모두가 한민족임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동포총연합회 이귀옥 봉사단 단장은 “중국동포들과 고려인동포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박애련 봉사위원장은 “이번 활동은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하게 돼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향후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성 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뜻을 함께 했던 고려인·중국동



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나눔과 봉사로 그 역사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이 양 동포 사회 간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동포청은 봉사 종료 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스리랑카) 인권유린사건 관련 재발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그간 우리 동포들이 고용노동환경에서의 겪은 차별 등 실태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올해 초부터 중국동포와의 공동 헌혈 행사(1.21), 고려인 동포와의 설맞이 노인복지관 봉사활동(1.23), 중국동포와의 공동 배식 봉사 활동(4.30), 고려인동포와의 배식봉사(5.27), 중국동포와의 서울시 대립동 플로깅 활동(6.22)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동포청, 제과제빵 직업훈련 받은 고려인 동포 응원

## 이기성 정책국장, "직업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이자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이 8월 8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에서 진행된 고려인 직업훈련 수료식을 찾아 미래의 제빵사들을 응원했다.

금년 고려인 대상 제과제빵 직업훈련 2기는 6월 30일 입교식 후 8월 8일까지 대한민국의 유명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종 합격한 17명 중 15명이 입교했다.

이번 훈련은 1기(2025.1.2.~2.28.) 훈련에 이어 아시아발전재단이 주관했으며, 동 재단은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 청소년 정착지원을 위해 ADF-최재형 장학금, 고려인 청소년 교육협약간담회 등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제2기 직업훈련은 6월 30일 입교식 후 8월 8일까지 대한민국의 유명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 최종적으로 15명 수료

육광심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이사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제과제빵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한호전에서 이번 과정을 수료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본 과정이 이 땅에서

동포 여러분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격려했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1기에 이어 이번 2기 훈련과 정까지 무사히 수료한 것은 모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시아발전재단은 고려인 동포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이 직업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이자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라 하고,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 내 정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고려인 청소년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29일 국회에서 있을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대화’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교육과 취업에 관한 주제도 포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 미(美) 한인사회 긴장...합법 체류에도 "자칫 구금, 추방될라"

## 美이민당국, '전과, 정치적 표현, 체류 자격 해석' 등 '일방적 판단' 적용 유학생, 교포 2세 등 '꼬투리' 잡아 영주권 박탈, 추방 위한 '구금' 현지 한인권익단체 등 "헌법상 권리에 대한 무모한 공격, 자유 억압" 비판 법원 개입으로 구금 제한 불구, 결과 불투명한 지리한 소송 거쳐야

(전호의 계속)

### R-2 비자 고연수 씨, 이민 법정 나오다 체포

국내 언론에도 최근 크게 보도된 또 다른 체포·구금 사례가 있다. 미국 퍼듀대 2학년 재학 중인 고연수 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지난 4년 전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를 따라 R-2 비자(종교 노동자의 부양가족)로 뉴욕에 입국했다. 현재 퍼듀대 재학 중인 그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6월 7일 승인을 받아 올해 12월 12일까지 합법 체류할 수 있었다는 게 고씨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어머니 김 목사가 소속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종교비자(R-1) '침원'이 없어 철회됐다는 이유로 고씨의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는 갑작스레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 때문에 이민법정 청문회에 출석했고, 다시 심리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고씨가 이날 법정을 나오자마자 5명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현재 고씨는 뉴욕 ICE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며, 보석 신청과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과도한 행정 집행이며, 법 절차 보장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도 고씨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고연수 씨를 비롯해 부당한 체포와 감금에 시달리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힘을 모아 ICE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고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는가 하면, 체포, 구금된 이민자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청사 앞 철조망에 꽃을 놓으며 행진하기도 했다.

### 대학생 정운서 씨, '팔' 지지 시위 벌며, 추방 위기도

단순히 이-팔 사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한국인 대학생도 있다. 컬럼비아 대학생인 정운서 씨(윤서 정, Yunseo Chung, 21세)는 합법적 체류자(영주권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박탈을

통보받았고, 구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CBS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연방 이민국이 정씨를 구금할 수 없다”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덕분에 현재 그녀는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탄압을 가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주류 언론에서 소환되고 있는 사건이다.

###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대한 한인사회도 대응 '고심'

그런 가운데 'NAKASEC'는 미 전역에 걸친 핫라인(1-844-500-3222, 24/7, 한국어·영어)을 통해 이민자 단독 사례를 접수하며 지원하고 있다. 'Know Your Rights 4 Immigrant' (아이폰), 'KYR 4 Immigrants' (안드로이드폰)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단독 대처 방법과 비상 연락 기능, 미리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한인 사회 역시 이처럼 트럼프의 ‘광적’이라고 할 반 이민정책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지 언론에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합법적 비자나 영주권, 심지어는 시민권 소지자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영장 없는 체포, 보석·면회 차단, 잘못된 신분 해석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는 미국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현지 체류 중인 한인들로서는 비록 법적 체류 신분이 있어도, 과거 전과나 정치적 표현이 이민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행정적 판단에 의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법원의 개입으로 당장은 구금이 제한되더라도, 지리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는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다. “표현의 자유와 이민법 사이의 충돌이 구체적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NAKASEC' 공동 대표 베키 벨코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한 '생명'은 재미 한인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벨코어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월(김태홍 씨)을 체포한 것은 트럼프 정권이 개인, 공동체,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무모하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많은 아시아계와 이민자 공동체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가 무시됨으로써 '권위주의'로 치닫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또한 디지털개발부는 외국인 심 카드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에게 '냉각기간'을 운영해 러시아 입국 후 이들의 심 카드는 몇 시간 동안 비활성화된다.

이러한 조치로 드론에 심 카드 이용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콤메르산트' 신문이 밝혔다.

지난주에 국내 여러 지역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연결에 장애 발생했다.

정부는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보안 조치라고 밝혔다.

## В России разрешат доступ к важным приложениям во время блокировок связи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утвердило соевым операторам схему, которая обеспечит россиянам доступ к важнейшим онлайн-сервисам —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блокирово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лава Минцифры Максют Шадаев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Цифровая эволюция».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льзователи смогут пройти капчу и попасть в "белый список" — туда войдут приложения такси, доставки, маркетплейсы и другие ресурсы,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жизни. Скорость соединения при этом сохранится.

«Это ресурс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ы хотим, чтобы они оставались доступны даже при отключении интернета»,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ведомство уделит иностранным сим-картам. Им предложено ввести «период охлаждения»: сразу после въезда в Россию такие карты будут неактивны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Это должно затруднить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дронах, пишет Коммерсантъ.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перебои с мобильным интернетом зафиксировали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Власти объяснили это мер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з-за атак беспилотников.

## 2026년 사할린, 국제 청소년 발명가들의 작품 전람회 처음 개최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사할린 지역이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표를 위해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청년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예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개최됐던 국제 청소년 발명가들의 발명품 전람회가 2026년 8월에 사할린주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사할린에서 포럼 개최 결정은 일본에서 투표로 채택되었다.

사할린주는 현재 일 년에 5백만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항과 국제 기후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새로운 회의 및 전람 센터로서 '사할린 엑스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필수적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창작 능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할린 테크'에서 학생들은 수요가 높은 전공을 익히고 있다. 우리는 첨단 공업학교와 국내 최초 수소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 국제적인 행사들, 한 예로 20개 국가들에서 온 1천 명 이상의 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한 '아시아의 아이들'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는 높은 수준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발명품 전람회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발표하고, 국제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는 창의성, 실용성, 물리법칙 준수, 수요성, 특히 가능성, 친환경성 등 12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발명품을 심사하게 된다.

이전에 청소년 발명품 전람회는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기타 국가들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는 2017년부터 참가해왔으며, 사할린주의 학생들이 큰 성과

를 거둔 가운데 지난해에는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юных изобретателей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в 2026 году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мет талантливую молодежь со всего мира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инноваций и новых идей.

В августе 2026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юных изобретателей —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раньше проводили в странах Азии и Африки.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форум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яли на голосовании в Японии.

Остров обладает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современным аэропортом с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до 5 миллионов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новым конгрессно-выставочным центром «Сахалин Экспо», успешно показавшим себ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лима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В школах и детсадах уже применяю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а в „СахалинТехе“ ребята осваивают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профессии. У нас есть передовая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и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Мы не раз принима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бытия, например,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тысячи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 стран. Готовы принимать госте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ыставка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Young Inventors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росткам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показать свои изобретения и получить призн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юри. Оценка проектов идет по 12 критериям, среди которых креативность, практичность, соответствие законам физик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пат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и экологичность. Ранее форум проходил в Малайзии, Индии, Китае, Нигерии, Вьетнаме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Россия участвует с 2017 года, и наши школьники добились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получили 13 медалей: 4 золотых, 4 серебряных и 5 бронзовых.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